



보도시점 2023. 4. 26.(수) 18:00 배포 2023. 4. 26.(수) 08:00

김진표 국회의장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 공동 개최

- 한미 정.관계, 군 및 재계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미동맹 70년을 축하하고 미래 발전을 기약 -

-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4.26.(수) 오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 리셉션에는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합참의장, 서울시장 등 주요인사 ▲각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인사 ▲각 당 대표 및 의원 ▲주한미국 대사대리 ▲미8군 사령관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대사 ▲한미 친선단체 관계자,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가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미한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다가올 70년을 더욱 큰 성공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은 각각 건배사를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기원했다.
- 이번 리셉션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국내.외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미 동맹 7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며, 한미 가치동맹 및 미래 동맹에 대한 단합된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영철 (044-200-2136)
	외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상윤 (044-200-2135)
담당 부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담당자	비서관	정종선 (02-6788-2050)

